

# 농어촌공사 담양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자 모집

✎ 이형권(=호남) 기자 | ☎ 승인 2025.09.30 17:57

은퇴는 안정되게, 노후는 두텁게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지원하는

##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원내용**

①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② 매도(일시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50만 × 지급기간 × 지급율  
\* 경작허용농지 1,000㎡ 미만으로 가입, 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③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지원 방법별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후 지원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지원요건**

약정체결 연도 기준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지급대상농지**

년 이상 소유 중인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

**사업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KFN 한국농어촌공사 FNB 농지은행 문의 **1577-7770**

[폴리뉴스 이형권(=호남) 기자]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담양지사(지사장 김건경)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동시에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담양지사(지사장 김건경)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경작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할 경우,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은퇴 농업인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의 기회를 제공해 농업의 세대교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 자격은 최근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지속해 온 만 65세에서 84세까지의 농업인이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가능하다.

지원 방식은 ▲매도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다.

- **매도 방식:**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급.
-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농지임대료 및 은퇴직불형 농지연금과 함께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보장.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농지은행 상담센터 또는 농지은행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건경 담양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된 노후를, 청년 농업인에게는 영농 기반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 제도"라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형권(=호남) 기자 news1@polinews.co.kr